

# 서캄차카 유전 개발 “물거품”

## 지하자원청, 유전개발 계약 해지 최종통보 ... 시추작업 늦어져

한국석유공사 등 국내기업들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서캄차카 유전개발사업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원대국 러시아에서 한국이 의욕적으로 벌이던 해외유전개발 사업이 탐사단계에서 물거품이 된 것이다.

정유업체와 석유공사에 따르면, 광구 허가감독청인 러시아 연방 지하자원청은 최근 한국석유공사에 서캄차카 유전개발사업 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라고 말했다.

서캄차카 해상광구는 러시아 최대의 석유기업 로즈네프트가 2003년 러시아 정부로부터 운영권을 따냈으며 한국은 2004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석유공사와 로즈네프트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공동 계약자가 됐다.

로즈네프트와 석유공사 등 7개 한국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은 6대4의 지분으로 <캄차카네프트가스>라는 공동 운영사를 세우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7월 말 종료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에 라이선스 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한국컨소시엄에는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가스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금호석유화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한국컨소시엄의 계약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시추 작업 등 애초 맺은 계약사항을 로즈네프트와 한국컨소시엄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계약 연장 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컨소시엄과 로즈네프트는 2007년 말까지 2공, 2008년 1공 등 총 3공을 시추할 예정이었지만 로즈네프트가 시추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추가 차일피일 미루어져 6월 첫 시추가 이루어졌다.

당초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어져 한국측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라이선스 연장을 받아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한국 유일의 시추선인 두성호가 1번 시추공에서 시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계약 종료로 곧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캄차카 해상광구는 오호츠크 해상의 수심 300m 이하의 대륙붕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만2680km<sup>2</sup>(남한 면적의 약 3분의2)이다.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37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측 지분 매장량은 15억배럴이었다.

특히, 서캄차카 광구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하면 거리와 운송비용 등의 문제로 현지 판매를 하던 다른 광구와 달리 직접 국내로 원유를 들여올 수 있어 원유수급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이 한국컨소시엄의 계약을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13>